11강 대장부를 논하다

◆ 1교시 홀로 올바른 도리를 실천한다

▲ 참으로 대장부답지 아니한가

大丈夫로는 이번이 두 번째인데요. 3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滕文公下 이렇게 돼있고, 등문공하 편에 제2장 제목을 '대장부, 천하의 한 가운데 서다'라고 뽑았습니다. 景春은 그 당시 지식인인데요, 맹자와 대화를 합니다. 맹자의 대화 상대는 1차적으로 자신의 제자들이고, 그 다음에는 당시의 군주들이고요. 그리고 지식인들이 주요 대화 상대인데, 그 지식인 중에서 비중을 많이 차지한 게 景春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한번 보죠. 景春曰, 경춘이 이렇게 말했다. 公孫衍, 張儀는 豈不誠大丈夫哉리오, 여기 대장부라는 말이 나오죠. 公孫衍이나 張儀는 어찌 진정한 대장부가 아니겠는가. 참으로 대장부답지 아니한가. 不자는 본래 용어를 부정하는 말이니다. '어찌 대장부가 아니겠는가' 이게 아니라, '어찌 대장부답지 않은가' 이렇게 '~답다' 이렇게 해야 아니 불자가 제대로 새겨지겠죠.

참으로 대장부답지 아니한가. 一怒而諸侯懼하고 安居而天下熄하니이다, 한번 성 내면, 노여워하면 제후들이 두려워 하고 편안하게 머물러있으면 천하가 조용하니이다. 지금 '불꺼질 식'자죠. 천하의 전란이 꺼져서 조용하다는 뜻 입니다. 천하가 평화롭다. 무슨 얘기냐면 한번 발분하면은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예를 들어 진나라 보고 초나라 공격하라고 그러고, 초나라 보고 제나라 공격하라고 그러고, 제나라 보고 연나라 공격하라고 그러고, 이런 식으로 유세를 해가지고 전쟁을 일으킨다 이거여요. 그러니까 제후들이 두려워하고 편안히 머물러 있으면 천하에 전란이 끊겨서 조용한거죠. 그러니까 공손연이나 장의같은 사람들이 정말 대장부라고 할만하다.

이런 식으로 경춘이 얘기 했는데, 장의야 뭐 워낙 유명하죠. 소진장의라 그러죠. 의진이라고, 의는 장의의 '의'자를 따서 그렇고, 진이라고 그러면 인제 소진의 '진'자를 따서 의진지리라 그러죠. 전국시대의 합종연횡책을 만들었던 장본인이 바로 소진이고, 연횡책을 만들어서 합종책을 깨뜨린 장본인이 바로 장의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소진은, 그 당시는 서쪽에 진나라라는 강대국이 있고, 그리고 동쪽 끝에는 제나라 강대국이 있고, 남쪽 끝에는 초나라가 있고요, 그 북쪽에는 연나라가 있고 가운데에 '삼진'이라고 해서 세 나라가 있는데 그게 바로 한, 위, 조입니다. 그 외곽의 4나라와 가운데에 있는 한, 위, 조를 합쳐서 이른바 이제 전국 7웅 이라고 그러죠.

그 전국시대의 7패자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일곱 나라가 흥망을 거듭하면서, 제나라가 초나라를 통일했는데. 그 과정 속에서 진나라가 한때 곤경에 빠졌는데 바로 소진이 이런 '합종책', 합종이라고 할 때 종은 '세로'라는 뜻입니다. 북쪽 연나라부터 남쪽 초나라에 이르는 연합을, 연합국 체제를 만들어서 서쪽에 있는 강대국 진나라를 견제하는 그런 정책을 만들어 낸 것이 소진이고. 그리고 이제 그 소진이 조나라의 재상, 조나라, 한나라, 위나라는 전부 강대국 진나라와 거의 국경을 맞대고 있는 그런 나라란 말이에요. 그 조나라 재상과 함께

www.artnstudy.com

나머지 다섯 나라의 재상 곧 6국의 재상을 겸임한 것이 바로 소진인데, 그런 식으로 소진의 합종책이 유지되었던 시대에는 진나라가 서쪽으로 나오지를 못해요. 그 이후에 장의가 움직이면서 합종책이 깨집니다. 원래 이제 장의와 소진은 둘 다 귀곡자 문하에서 공부했다고 그러죠. 근데 귀곡자 문하에서 동문수학한 사람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손빈과 방연 그 제2의 손자로 알려진 손빈과 방연도 둘 다 귀곡자 밑에서 배웠다고 하는데, 사실인지는 좀 불명확합니다. 그 소진의 그 합종책이나 장의의 연횡책도 역사적 기록과는 좀 다른 부분들이 있어서 어떤 학자들은 후세에 만들어 낸 얘기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쨌든 합종책이 유지되었던 시대에는 진나라가 견제를 당해서, 동쪽으로 진출을 못 합니다. 그러다가 장의가 움직여서 합종책을 깨요. 소진은 뭐 굉장히 뛰어난 전략가이기는 했지만 말로는 그렇게 좋지는 않았고요, 마지막에 제나라인가에 갔다가 결국 죽임을 당하고 마는데, 그 아우인 소대와 소려도 굉장히 뛰어난 전략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쨌든 그 소진이 죽고 난 다음에 장의가 움직여서 결국 이른바 서쪽 강대국 진나라와 동쪽 강대국 제나라를 이어서 천하의 제후들이 진나라와 협력하는 평화체제안을 내놔요. 근데 이게 평화체제안이 아니라 진나라에의 복속되는 괴뢰정부 수립으로 가고 말아서 결국 진나라가 천하를 이제 통일하게 되죠. 나머지 6국이 이제 다 망하고요. 이제 그런 대책을 내놓은 게 張儀고 그리고 여기 나오는 公孫衍은 그 진나라 재상이었습니다. 그 본래 진나라 재상이였고, 거기에 장의가 가담을 하게 되는데 公孫衍은 그냥 강공책을 펼치는. 요즘으로 치면 강경매파에 해당하는 인물입니다. 다른 나라를 이간질 시켜서 그 무너트리는 장의의 전술이 아니라. 그 바로 그냥 인접한 조나라를 공격하고, 또 조나라를 도우러 오는 다른 나라도 공격하고, 뭐 이런 식으로 강경한 정책을 펼쳤던 것이 公孫衍이였는데, 간혹 제나라의 재상으로서 자기 맘에 안 들면 그냥 다른 나라를 마음대로 공격하고 했기 때문에 제후들이 두려워했죠, 두려워 하긴 했는데 뭐 公孫衍도 진나라에서 쫓겨납니다. 왜냐하면 張儀처럼 이렇게 뭐랄까요, 힘들이지 않고 장의가 내놓은 계책은요 그저 힘들이지 않고 그 6국의 합종책을 그냥 와해를 시켜버립니다.

결국 초나라에 가서 우리가 손잡고 제나라를 공격하자' 뭐 이런 식으로 유혹을 하는가 하면, 조나라에도 그런 식으로 유혹을 하고 나머지 6국과 함께 그 6국에게 우리 강대국 진나라와 협력하면 우리가 당신 나라를 위해서 더 많은 땅을 떼어주겠다 이런 식으로 이익을 가지고 꼬드깁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초나라가 거기에 말려들어 결국 망하고 말죠. 나라가 망해야 충신이 나온다고 뭐 이야기 하는 게 이제 뭐 노자에 나오는 이야기이죠. 국가 혼란에 필충신이라고, 국가가 혼란해야 충신이 나온다고 충신 만들려고 국가가 혼란해선 당연히 안 되는 겁니다만. 이제 뭐 張儀나 소진, 이 公孫衍 같은 전략가들의 이야기를 하면 엄청나게 재미도 있는데, 이 시간의 주제는 아니니까 일단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한번 노여워하면 제후들이 벌벌 떱니다. 자기 나라 쳐들어오지 않을까 그리고 또 조용히 있으면 그냥 천하가 조용해요. 그러니까 천하를 그냥 좌우하는 인물들이니까 정말 대장부라 할 만하다. 이게 景春이라는 지식인의 이야기이고 그 다음에 맹자 이야기를 한번 해 보죠

孟子曰 是焉得爲大丈夫乎리오, 이런 사람 따위가 어찌 대장부가 될 수 있겠는가. 아니라는 거여요. 子未學禮乎아, 그대는 아직 예의를 배우지 못했는가? 丈夫之冠也에, 곧 대장부가 관례를 올릴 때에. 관이라고 하는 건 이제 성인식이죠. 성인으로 인정 한다고 해서 관을 쓰고 자를 받고, 이제 성인으로 대우를 받습니다. 장부가 관례를 올릴 때, 성인식을 치를 때에 父

www.artnstudy.com

命之하고, 아버지가 명령하고, 가르쳐 주고. 女子之嫁也에, 딸자식이 시집갈 때에는. 母命之하나니, 어머니가 가르친다. 往에 送之門할새, 딸자식이 시집갈 때에 전송할 때 이렇게 말한다. 戒之曰, 경계해서 이렇게 말한다 이거여요. 往之女家하여, 너의 집으로 가서 그러니까 시댁을 너희 집 이런 식으로 본거죠. 必敬必戒하여, 반드시 공경하고 반드시 경계해서. 無違夫子라하나니, 남편을 어기지 말라 이렇게 가르치니. 이것은 맹자 당시 시대 상황을 고려해서 이야기해야겠죠. 이걸 두고 맹자가 남녀차별하였다고 섭섭해 할 것은 없습니다. 맹자 이후 2천년 동안 차별하였는데요. 새삼 맹자 때로 돌아가서 맹자가 남녀차별했다고 할 것은 없는 것 같고요. 당시의 시대적 한계라고 봐야 하구요. 맹자가 그것을 넘어서야 한다고 주장 한 적은 없습니다. 유감스러울 것 까지도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다만 남녀차별이라고 말한만한 부분이 한 두 차례 나와요. 오히려 놀라운 일이죠. 그 당시에 다른 문헌에 얼마나 그런 내용이 많은지 살펴보면 오늘날 맹자가 과연 고전으로서 자격이 있다는, 고전시대라고 하는 것은 그 문헌이 태어난 그 시대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를 초월한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를 기준으로 하여 이야기를 해야 할텐데요. 고전시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시대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시대를 물리적인 시공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정신이 이상적으로 발휘된 그런 시대를 고전시대라고 한다면 이 논어나 맹자의 말은 고전의 자격의 갖추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극히 적어요 그런 일이 많을법한데 극히 적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유교속의 그 강력한 그 가부장제 구조라든지 이것들은요 논어나 맹자가 아니고요 주례나 예기나 의례 같은 곳에 가득합니다. 어떻게 보면 공경이 직접 이야기한 부분이 거의 없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잔재적 요소가 되다보니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알려져서 오해를 받기도 하지만 어쨌든 송나라 유학자들 이후로 가장 중시했던 유가문헌인 사서에는 그런 내용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 동시대의 다른 문헌,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경전이나 다른 문헌에 그런 내용이 얼마나 많은지를 상기해본다면 오히려 이것은 그중의 극히 일부일 뿐입니다. 남편을 어기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하니, 以順爲正者는, 순종하는 것을 올바른 도리로 여기는 것은. 妾婦之道也니라, 장부의 도리가 아니다. 이렇게 낮추어 말합니다. 그리고 보시죠 居天下之廣居하면, 천하에서 가장 넓은 거처에 머물며. 立天下之正位하며, 천하의 가장 올바른 위치에 있으며. 行天下之大道하여, 천하에서 가장 큰 도리를 실천해서. 得志하여는 與民由之하고, 뜻을 얻어서는 백성들과 함께 마땅한 도리를 말미암고. 不得志하얀 獨行其道, 뜻을 얻지 못해서는 홀로 그 길을 걸어간다. 우린 보통 得志하면은 與民由之까지 잘되는데 不得志하면 망가져 버리죠.

▲ 천하에서 가장 넓은 거처에 머문다

예를 들면 得志하면 고시패스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입니다. 不得志하면 고시패스 못해서 망가지는것 이죠. 그게 아니고 不得志하얀 獨行其道하여, 홀로 그 올바른 도리를 실천해서 富貴不能淫하며 부귀가 그 사람을 음란하게 할 수 없으며, 대장부로 하여금 지나친 욕심을 품지 못하게 하며, 부유하다 하더라도. 貧賤不能移하며, 가난하고 천한신분이 분명히 뜻을 옮기지 못하며, 威武不能屈이, 물리적인 강제력이 그 사람을 굴복시키지 못하는 차이점이 되지 않느냐. 此之謂大丈夫니라, 이런 사람을 일러 대장부라고 한다. 일단 어디에 살고 어디에 쓰느냐 이걸 한번 보도록 하죠. 그 天下之廣 이때 천하라고 하는 것은 이른바 언더더스카이 물리적 공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천하에서 가장이라고 최상으로 쓰이는 것입니다. 천하에서 가장 넓은 거처에 그 머문다. 그리고 立天下之正位, 천하에서 가장 올바른 위치에 선다. 行天下之大道, 천하에서 가장 큰 길이에요. 대도 천하에서 가장 큰길을 거꾸로

www.artnstudy.com

가는 겁니다. 뭐냐? 의여요. 의지는 여기에 빠져있죠. 그리고 우리가 예능예지 뭐 사단, 오행, 오상 이러다보니깐 숫자에 집착하는데 어떤 때는 인과 의만 이야기하구요 어떤 때는 인만 이야기하구요 어떤 때는 인예의를 이야기 하고요. 어떤 경우에는 인의예지를 이야기하구요 어떤 경우에는 인의예지신을 이야기하구요. 어떤 경우에는 백가지로 이야기하고 천가지로 이야기하고 하는 것 입니다. 숫자에 집착하면 안 됩니다. 응용이 다양한 형태로 됩니다. 인이 다 다른 얼굴이죠. 다 인입니다. 인을 실천하는 게 의죠 근데 이걸 두개로 이야기하면 예는 빼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왜 인이냐면 거인유의 거인 할 때 居는 그곳에 머문다 산다라는 뜻입니다. 인에 산다라는 뜻입니다. 유의 할 때 유는 걸어다닌다라는 뜻입니다. 말미암는다 마땅한 도리에 말미암는다. 거인유의니깐 居天下之廣居, 立天下之正位, 行天下之大道 그러니까 인과 예와 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인, 예, 의'라는 것을 모르고 이 부분의 대장부론 하는 것은 아무소용이 없어요. '인, 예, 의'를 실천하는 사람 그것이야 말로 천하에서 가장 넓은 거처에 머물고, 천하에서 가장 올바른 자리, 그리고 천하에서 가장 큰길을 걸어가니까 어떤 것도 이보다 앞선 가치가 있을 수 없다. 어떤 것도 그러니깐 富貴나 貧賤이나 威武나 이런 것이 굴복 시킬 수 없다. 이게 대장부론의 끝입니다. 맹자의 기상이 엿보이는 부분이죠. 이걸 이루기 위해서 이제 호연지기도 기르고 용기도 기르고 부동심도 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제 그다음에 得志하여는 與民由之하고, 不得志하얀 獨行其道하여, 자신을 알아주는 훌륭한 군주를 만나서 왕도정치를 펼치는 겁니다. 왕도정치를 펼치게 되면, 만백성들과 함께 왕도로 걸어 갈수 있는 거죠. 마땅한 도리를 함께 걸어 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된다는 보장이 없죠. 대체로 안되죠 이런 뜻은 不得志하면 망가지는 것이 아니고 獨行其道하는 것 입니다. 혼자 그 길을 가는 것 입니다. 혼자가요. 이게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제가 써 놓았습니다. 得志하얀 兼善天下니라. 天下 사람들과 兼善, 함께 선을 실천하고 不得志, 안되면 어떻게 하느냐 獨善其身입니다. 자기 혼자 하는데 자기 몸을 홀로 수양한다. 홀로 수행한다. 남이야 하거나 말거나 우리는 보통 세상이 혼란스럽고 또 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세상 혼란스럽다. 내가 망가지죠. 세상에 분노한 나머지 내가 망가집니다. 그런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주로 맨 먼저 잘나가는 사람들이 저지르는 과실과 또 다른 맥락의 과실을 저지르죠. 또 하다 못해 노신이 세상에는 분노가 너무 많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마음속에 분노가 가득 차있죠. 왜 세상이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다. 거꾸로 생각하면 세상이 왜 그 사람을 알아주어야 되겠어요? 그렇죠? 공자는 거기다 바로 반문을 하죠. 남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노여움을 품지 않는 것은 군자다운 노릇인데. 그러면 내가 남을 알아보지 못 할까 근심해야 한다는 거죠. 자신이 남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그 근심을 가지지 않고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는 고민에 빠져있으니 분노가 쌓여 있을 수밖에 없죠. 분노에 의해 이렇게 망가지는 것입니다. 이게 좀 이상합니다만 하여튼 요즘 그 유행하는 것이 로스쿨이잖아요. 저는 법률 공부하는 사람 중에서 이렇게 쌓인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게 잘 안돼서. 왜 그럴까요? 그때 得志라고 하는 것이 무얼까요? 이건 맹자식으로 여민무지하고 겸선천하 하는 거 같지 않습니다. 與民由之하고 兼善天下하는 것, 그게 안 되었다고 해서 망가질 거 같진 않은데.

예. 다시 한 번 보죠. 與民由之, 뜻을 얻어서는 백성들과 함께 그 마땅한 도리를 말미암고. 不得志하여, 뜻을 얻지 못해서는. 獨行其道하여, 홀로 그 올바른 길을 걸어가서. 富貴不能淫하며, 부귀가 그 사람을 지나치게 할 수 없으며. 사람이 재물이 많으면 흥청망청, 망가지잖아요. 흥청망청 망가지는데 그 재물을 직접 노력을 해서 이룬 사람들이 아니라 그걸 그대로

www.artnstudy.com

엄청난 재물을 물려받은 사람들이 주로 그 부귀로 인해서 망가지는 거죠. 富貴不能淫이 아니고 富貴必能淫이 되죠. 보통은 그렇습니다. 많은 재산을 물려 줬을 때, 그 부귀가 그 사람을 망가뜨리는 경우를 많이 보죠. 부귀가 사람을 망가트리죠. 그리고 貧賤不能移하며, 사람이 가난하게 되면 당장 아쉬운 게 먹고 살 호구지책이니까. 뜻을 옮기게 됩니다. 뜻을 바꾸게 되죠. 올바름을 추구하다가 깨지는 거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貧賤, 이게 예를 들면 이사 같은 사람 바로 깨져버리죠. 이 사람은 진나라 재상까지 했습니다만, 다 망가진 인생이죠. 부끄럽기로는 빈천보다 더 심한 게 없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수치스럽기로는 가난보다 더 심한 게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 게 이사입니다. 그러면서도 출세를 위해서 끊임없이 몸부림쳤죠. 그래서 강대국 진나라 재상까지 했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자기 아들과 함께 죽죠. 아들과 함께 죽지 않더라도. 아들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그 실패한 게 아니라요. 완전히 처음에 굴복당해 버린거죠. 빈천에 굴복당해 버린 겁니다.

그 빈천 앞에서 누가 당당할 수 있겠는가. 그렇지만 빈천을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태도를 바꾸지 아니하였잖습니까? 정말 빈천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겠는가 하면은 함부로 이야기하기 힘들 겁니다. 근데 당장 빈천하지 않는데도 그러잖아요. 당장 빈천하지 않고, 당장 굶어 죽는 것도 아닌데. 그게 전부인양 이야기하잖아요. 뭐 이렇게 富貴不能淫이 아니고 富貴必能淫이 되죠

▲ 과거 그리고 현재의 대장부

그럼 威武不能屈, 위문은 물리적인 강제력 힘입니다. 그 물리적인 강제적인 힘이 굴복시킬 수 없는 것, 此之謂大丈夫 뭐 이런 사람을 대장부라고 합니다. 威武不能屈은 다행히 우리 역사 속에도 많죠. 제가 생각하기에 威武不能屈은 이른바 민주화 운동했던 사람들이 다 威武不能屈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 80년대 감옥에 들어간 그 어떤 사람들 예를 들면 동양학 강좌로 유명한 신영복 선생 같은 분. 그 양반은 감옥에 있고 우리는 밖에 있었거든요. 밖에 있는 사람이 뭐가 되는 겁니까? 그런 양반이 감옥에 들어 가있는 세상이니까. 또 야생초편지 쓴 황대권 같은 분들이 감옥에 계셨잖아요. 그 안에서 책을 쓰고 글을 쓰고 있는데 그걸 보면 그 안에서 인간이 스스로 말살되지 않으려고 그 안에서 야생초를 키우잖아요. 교도소 안에서 쫙 험한 땅이 있으니까, 거기서 야생초를 키우면서 몸부림을 친 겁니다. 인간성을 버리지 않으려고요, 어쨌던 거기 굴복당하지 않은 사람들이죠. 威武不能屈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사내대장부라고 합니다. 우리도 뭐 이 威武不能屈인 대장부들이 많이 있는 거 같고요. 그리고 또 다른 대장부는 옛날에 옛날 사람들 중에 찾아보면 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밑에 제가 시를 하나 적어낫는데, 이율곡이죠, 이이요. 이제 한 번 살펴 보시죠. 李珥의 燈下看書,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등불아래 책을 읽는다, 그래서 燈下看書인데요. 何處人閒有廣居, 인간세상의 유광거, 가장 넓은 글자가 있는가, 그러니까 인간세상 넓은 곳이 어느 곳에 있는가. 百年身世是蘧廬, 蘧는 풀이라는 뜻이고, 廬는 풀로 지은 오두막이니까, 蘧廬는 풀로 엮은 오두막입니다. 백년사는 이 사람 살아봤자 백 년 이니까 오두막이면 충분하다, 넓은 거처 찾으려고 애쓰지 마라. 마치 맹자의 말을 부정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반댑니다. 맹자의 말을 강하게 긍정하는 표현입니다. 왜냐면 자기가 넓은 거처 찾아서 계속 돌아다녔거든요. 금강산까지 갔는데 못 찾았거든요. 그리고 돌아온 겁니다. 바로 이 오두막 속에서 책 읽는 것이 廣居다 이런 뜻입니다. 오두막 속에서 광거를 찾아야지 진짜 광거가 따로 있나 싶어서

www.artnstudy.com

금강산 찾아가봐도 별 볼 일 없더라 이런 뜻입니다. 금강산을 왜 찾아갔는지는 우리가 알죠, 율곡이 16세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3년상 치르고 나서 19세 때에 금강산을 들어가죠. 그리고 한 1년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서울에 머물면서 공부한 겁니다. 이때부터, 그리고 다음에 21세에 서울한양시에 장원급제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23세에 별시가 있었는데 거기서도 장원급제하죠. 그 다음에 26세에, 23세에 장원급제 할 때 천도책이라는 명문장이 나옵니다. 요즘 뭐 우리가 고시공부하는 사람 논술문 쓴 게 알려지는 경우 있나요. 이 경우는 뭐 다 너무 허접해서 그렇죠. 근데 천도책 같은 게 나오고 나서 26세 때 명경과도 보고 대과도 봤는데 다 장원급제에요. 향원과도 장원급제, 진사과도 장원급제, 생무과는 경정과거든요. 경정공부 잘하는 사람이 하는 거고, 진사는 문학이에요, 시 부분 뭐 이런 거여요. 그래서 구도장원공, 장원급제 9번 했다. 헤아려 보면 9번이 되네 안되네 그러는데 뭐 중요하겠습니까? 하여튼, 9번 장원급제한 사람 율곡 이이 그러는데. 또 제자들 중에서 과거 공부하러 오는 사람이 많아요. 왜냐하면 족집게, 고시관보다 위에 있으니까, 뭐 심지어 이조판사 하면서도 판사하면서도 시험봤다고 그래요. 과거 시험 보면 시제가 지고 오라해서 가지고 오면 그 위에 써가지고 답안지 사이에 끼워 넣어요. 끼워놓으면 고시관들이 그거 밝혀내느라고 애쓰고 참 유머가 있는 장관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텐데 참 오버한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니까 아무리 과거기록을 봐도 과거 공부는 공부가 아니라고 얘길해요, 율곡이. 과거 공부는 공부가 아니다. 이야기 공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봤자 과거 공부하는 제자들이 까맣게 몰려오죠. 말은 한 두 학도라고 해요, 한 두 학도들이 찾아와서 배우려고 했다는데 한 두명의 학도는 완전히 그냥 말이 안 돼죠.
百年身世是蘧廬라, 백년사는 이 신세 오두막이면 족하지 初回海外游山夢이라, 처음으로 비로소 해외 바다 바깥에서 산을 찾아 헤매는 꿈에서 돌아왔다. 깨어났다 이 말이죠. 깨어나서 一盞靑燈照古라, 일잔은 기름 등잔불을 얘기하는 거죠, 등잔불이니까요, 한잔 등불아래에서 고서를 줘 한잔 등불이 고서를 비춘다 ,그러니까 옛 책을 읽는다, 여기서 내가 광거를 찾았다는 이런 겁니다. 제 아무리 멀리 돌아다니려 해봤자 책을 통해서 돌아다니는 것에는 견주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뭐 책만 보고 있어서는 아니 되겠지만 옛사람들 중에서 대장부를 찾아봤는데요, 이번에는 율곡을 대장부 속에 넣어봤습니다. 이제 뭐 금강산에서 돌아온 거니까 그 옛날이 있는 거죠. 속세를 떠나서 더 넓은 곳을 찾다가 결국 돌아와서 세속 속에서 자기 자신을 찾았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4페이지에 보면 이제 제 9장에 나오는데 이게 이제 뒷부분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역시 맨 아랫부분에 보면 제9장의 맨 아랫부분 古之人이 옛사람이 이랬다 이거에요. 得志하얀 澤加於民하고, 뜻을 얻어서는 은택이 백성들에게 가 입혀지고, 不得志하얀 修身見於世하니, 뜻을 얻지 못해서는 자기 몸을 닦아서 세상에 나타나니. 外物不可必이라고 장자에도 나옵니다. 外物은 마음대로 안 되죠. 외물은 바깥일이여요. 불가필, 나를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게 아니죠. 면접을 봤다. 왜 내가 떨어졌을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 제가 면접을 봐도 마찬가지죠. 면접을 봐도 마찬가진데 면접을 걸리는 입장에서 말할 것도 없죠, 마음대로 안 돼요. 군중이 뭐 나를 알아줘야 내가 뭐 왕도 하고, 뭐든 할 것 아니여요. 근데 알아줍니까, 어디? 불가필,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 나는 바꿀 수 있죠. 나는 맹자의 주장입니다. 이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니까 窮達이라고 하는 게 마음대로 안 된다. 窮은 공평하게 사는 거고, 達은 연달하는 겁니다. 窮達은 마음대로 안 돼요. 다만 의리를 잃지 않아야 되요. 이때와 이때가 달라져선 안

www.artnstudy.com

된다 이거죠. 그럼 은택이 백성들에게까지 미치고, 그리고 모든 백성들과 함께 말미암고 부득지 아니한 것이죠. 不得志 아니하니 修身이 아니하네, 수신이 자기 몸을 닦는다는 거죠. 자기 몸을 닦아서 세상에 나타난다. 누가 그랬느냐, 이게 대장부는 누구냐, 이게 퇴계 이황입니다.

이황은 1500년 아니면 1501년생일거에요. 율곡은 1536년생이고, 근데 그 당시 문정왕후하고 같은 나이여요. 태어난 시대가 같아요. 그 당시 조정에 있던 인간들 중에 사람 같은 사람들 별로 없어요. 말을 너무 함부로 하는 거 같은데, 그 당시 조정에 있던 인간 뭐 보면 전부 그냥 엉망진창이에요. 그 시대에 달하면 벌써 망가진 거야. 안가잖아요. 오라 그러는 직책이 홍문관, 대제학, 성균관 대서학에도 불구하고 안갑니다. 이게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修身에 도움이 안되는 거에요. 그러니까 창밖 오솔길 산책하고, 매화 기르고, 청량산 다니고, 수신에 도움이 되고 관직은 수신에 도움이 안 된다는거죠. 어쨌든 저는 퇴계학이나 뭐 어떤 거 권력과 비슷하게 되어 있는 건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하는데요, 어쨌든 그건 그거고. 그렇다고 해서 평가받아야 할 부분이 평가받지 못해서는 안 되겠죠. 이게 뭐 이런 식의 경우 궁달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니까 결국 제자들이 모이죠.,

퇴계와 율곡의 만남도 이채롭습니다. 원래 이게 훌륭한 스승이 있으면, 그 밑에 사람이 모이잖아요, 사람이 모이면 또 파벌이 형성 되잖아요. 그러면 텃세가 생기고요, 율곡이 퇴계를 찾아 갔을 때도 그랬죠, 율곡과 퇴계 사이, 요즘 제가 그 쪽 문헌를 안 봐서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율곡이 23세, 퇴계가 56세 정도일 때 둘이 만났습니다. 33세살 차이죠. 연대가 제가 좀 확실치 않네요. 찾아갔을 때 퇴계가 율곡을 극진하게 대접하거든요. 근데 다른 제자들은 뭐 새파란 젊은이한테 극진하게 대접을 하니까 좀 떫죠. 이래서 율곡이 시를 한수 남기고 간단 말이에요. 나이 많은 제자들이 시를 보니까 장난이 아닌 거에요. 그 제가 시를 다 기억하고 있었는데 잊어버렸습니다. 장난이 아니니까 하는 얘기가, 사람은 시원찮은데 시는 참 좋네요, 이렇게 얘길했어요. 제자들이요. 제자들은 40이 넘은 제자들인데 하도 젊은 친구가 와서 그러니까 사람이 시원찮은데 시는 훌륭하네요. 그러니까 퇴계왈 시가 사람만 못하다 이렇게 한 마디만 간단하게 얘기했다고 하는 데요. 안목이 있는 거죠, 어쨌든 이게 맹자의 대장부론인데요. 이 시대의 대장부가 뭐가 있을까, 미국에 굴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옛사람 중에서 대장부라고 할 만한 사람들을 찾아보면 율곡 이이 얘기할 수 있고, 퇴계 이황도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다 맹자의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서 공부했고, 수양했던 사람들이죠. 대장부라고 하면 사실 맹자의 기상을 보여주는 대목인데요, 이 외에 다른 자료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시간 관계상 오늘은 뭐 이 정도로 맹자의 대장부론을 정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www.artnstudy.com